

독서클럽 모임 보고서 – 배채채

1주차	일시	4 월 22 일 17:00 장소명 : 상상파크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배도현(2293094)	○ (비대면으로 참여)
		한채원(2393075)	○
	이채원(2393076)	○	
진도	도서명: 모순	진도페이지: 1 p. ~ 80 p.	
토론 내용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bottom: 10px;">  </div> <p style="text-align: center;">[좌측부터 배도현 , 한채원 , 이채원, 노병국 교수님]</p> <p>※ 개인별 언급사항이 드러나도록 기술</p> <p>토론내용 작성</p> <p>배도현 : 진진이 처음부터 자기를 모순이라고 한 건 되게 공감됐어요. 저도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잘 살아왔는데, 정작 제가 뭘 원하는지는 모르겠던데요.</p> <p>한채원 : 그건 단순히 감정 문제라기보다 시대적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세대는 부모 세대가 이뤄놓은 가치관 안에서 자라면서도, 전혀 다른 사회에서</p>		

		<p>살아가야 하니까.. 안정된 직장, 결혼, 효도 같은 걸 해야 한다고 배우지만, 실제로론 불안정한 일자리와 개인주의 사회 속에서 살고 있기도 하고요.</p> <p>이채원 : 그래도 전 진진이 너무 회의적이라고 느꼈어요. 부모가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나요? 모순이라는 말도, 결국은 자기 정체성이나 방향이 없다는 뜻이잖아요.</p> <p>노병국 교수님 :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지. 이 책 초반에 진진이 느끼는 불편함은 단지 개인 문제가 아니라 여성으로서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이랑 자기가 원하는 것 사이의 갈등이야. 엄마를 존경하지만 엄마처럼은 살고 싶지 않다는 게 핵심이지. 그게 바로 한국 사회가 주는 이중 잣대야.</p>
--	--	---

2주차	일시	5 월 7 일 17:00 공학관407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배도현(2293094)	O (비대면으로 참여)
		한채원(2393075)	O
	이채원(2393076)	O	
진도	도서명: 모순	진도페이지 82 p. ~ 147 p.	



[좌측부터 한채원, 이채원, 배도현]

토론 내용

※ 개인별 언급사항이 드러나도록 기술

토론내용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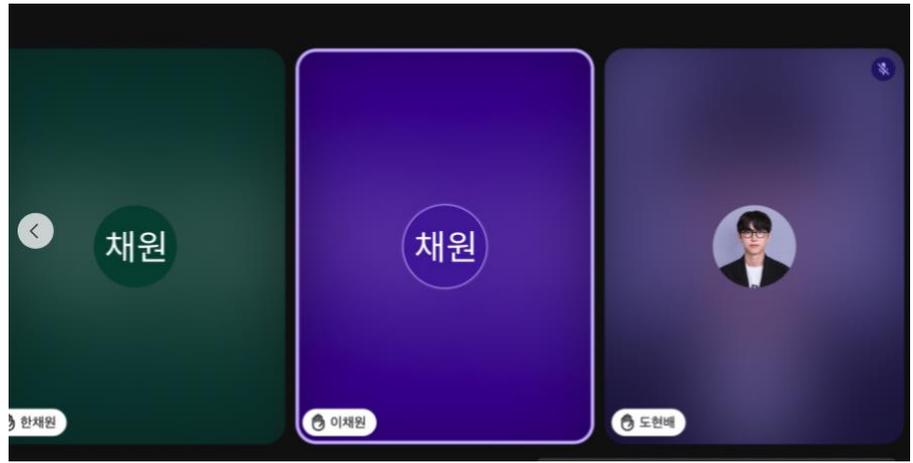
배도현: 저는 솔직히 진진이 나영규를 선택한 게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김장우는 확실히 감정적으로 진진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잖아요. 둘이 같이 있을 때 진진도 분명히 흔들렸고, 그게 단순한 설렘 이상의 감정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결국 진진은 더 평범하고, 안정적인 선택을 한 것 같네요. 현실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한채원: 그렇다고 나영규를 선택한 게 완전히 계산적이라고 보긴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진은 이모의 삶을 보면서 사랑만으로는 모든 걸 감당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잖아요. 김장우는 진진의 과거를 모른 채 사랑을 말했고, 진진은 그 불균형이 불안했을 수도 있어요. 아마 진진에게 중요한 건 감정의 크기보다 그 사랑이 자기 삶 전체를 감싸줄 수 있는가였던 것 같아요.

		<p>이채원: 저는 오히려 진진이 용기 있는 선택을 했다고 봐요. 사랑이라는 게 꼭 열정적인 감정만으로 성립되는 건 아니잖아요. 진진에게 필요한 건, 자기가 처한 현실을 감싸줄 수 있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김장우처럼 불완전한 감정보다, 나영규처럼 조용하고 묵직한 방식이 더 와닿았던 것 아닐까요?</p>
--	--	---

3주차	일시	5 월 14 일 23:00 구글미트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배도현(2293094)	○
		한채원(2393075)	○
		이채원(2393076)	○
진도	도서명: 모순	진도페이지: 148p. ~ 206 p.	

토론 내용



한채원 : 이번 챕터에서는 유독 사랑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안진진은 나영규와 김장우 둘 중 누구를 더 사랑했는가?에 대해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배도현 : 저는 진진이 결국 김장우를 더 사랑했다고 생각해요. 안진진은 나영규의 안정감 있는 삶을 부러워하기도 했지만, 마음이 완전히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반면 김장우와 있을 때는 계산 없이 감정이 먼저 움직이잖아요. 안진진이 술을 먹고 김장우에게 아버지의 행동을 투영하고, 그 순간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다고 표현한 장면에서 그녀가 김장우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채원 : 저는 반대예요. 진진이 진심으로 더 깊이 연결됐던 사람은 나영규였다고 생각해요. 김장우는 감정적 끌림은 있었지만, 그와의 관계에서는 늘 불안해했잖아요. 오히려 나영규와 대화하면서 진진이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장면이 자주 나와요. 진정한 사랑은 불꽃 같은 감정보다도, 함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믿음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나영규가 더 가까웠다고 봅니다.

한채원 : 이 책에서 나영규와 김장우는 각각 '이성적인 삶'과 '감정적인 삶'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안진진이 한 말 중에 "영규와 만나면 현실이 있고, 김장우와 같이 있으면 몽상이 있었다"라는 말이 기억에 남는데, 그래서 전 둘 사이에서 갈

		<p>등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삶과 사랑이 어떤 것인지 배워가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p> <p>이채원 :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나영규가 마치 삶 전체가 미리 짜인 설계도처럼 움직이는 사람이잖아요. 안진진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할 수도 있었겠지만, 책임감 있고 확신 있는 모습이 불안정한 가족 관계 속에서 자란 진진에게는 일종의 '안전한 세계' 처럼 보였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p>
--	--	---

4주차	일시	2025.05.28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배도현	O(비대면으로 참여)
		한채원	O
		이채원	O

진도

도서명: 모순

진도페이지: 207 p. ~ 289 p.



[좌측부터 배도현, 한채원, 노병국 교수님, 이채원]

토론 내용

※ 개인별 언급사항이 드러나도록 기술

토론내용 작성

배도현: 저는 마지막까지 안진진이 김장우랑 이어질 줄 알았는데.. 이런 결말이 나오니까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책 다 읽고나서도 여운이 길게 느껴졌어요.

노병국 교수님: 안진진 이모는 왜 극단적 선택을 한걸까? 자식들도 잘 컸고, 돈도 있고, 잘 살고 있었는데 뭐가 불행해서 그런 선택을 한건지 이해가 안 되네

한채원: 저도 안진진이 김장우 아니라 나영규 택한걸 알고 충격받았어요.. 이모의 선택이 얼마나 슬픈 결말이었는데 누구보다 잘 알텐데, 왜 굳이 이모와 같은 길을 가려한걸까요?

이채원: 그래서 책 제목이 모순인 것 같아요.. 안진진은 이모의 삶을 통해 사랑 없는 결혼이 어떤 결말로 이어졌는지 직접 경험했지만 본인도 결국 안정적인 삶을 택했잖아요. 독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겠지만, 안진진은 본인이 살아본

		<p>삶이 아닌 이모처럼 살아보지 못했던 삶을 선택하고 직접 스스로 경험해보겠다고 하니 어느정도는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어쩌면 안진진도 이모처럼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비극적 결말을 보게 될 수도..</p> <p>노병국 교수님: 아~~ 그래서 모순이구나? 그래도 안진진 선택은 납득이 안 된다. 정답을 알고 있는 시험 문제에서 일부러 틀린 답을 고른 것 같지 않니?</p> <p>배도현: 그게 참 어렵고 복잡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안진진 입장에서는 사랑이라는 감정보다, 지금 눈앞의 삶을 지탱해줄 수 있는 기반을 원했던 걸 수도 있죠. 작중에서도 김장우에게 자신의 가난을 숨기는 걸 보면 안정적인 삶을 생각보다 더 원했던 걸 수도 있어요.</p> <p>한채원: 저는 그래도 안진진이 김장우를 택하면서 이모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거라고 생각했어요. 책이 전체적으로 모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런 결말이 납득이 안 되진 않네요.</p> <p>이채원: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는 다르다. 자기가 해보면 다른 결말을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니 안진진도 같은 길을 같은 방식으로 걷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p> <p>노병국 교수님: 우리도 인생에서 모순된 순간을 끊임없이 겪고 반복하니까, 모순이라는 제목 자체가 인간 그 자체를 뜻하는 말인 것 같다. 완벽하지 않은 선택 속에서도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살아가는 이유, 그게 이 책이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닐까?</p>
--	--	---

활동	No.	클럽원 정보	후기 내용
----	-----	--------	-------

후기	1	<p>배도현 (2293094)</p>	<p>『모순』은 단순한 성장 소설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내면의 충돌과 선택의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작품이었다. 진진은 가족과 사랑, 안정과 자아 사이에서 계속 흔들리며, 그 안에서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려 한다.</p> <p>이 책을 읽으며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진진이 이모의 삶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보았음에도 결국 비슷한 길을 택했다는 사실이었다. 정답을 알고도 다른 길을 가보려는 모습이 어리석어 보이면서도 한편으론 인간적이고 현실적이었다.</p> <p>이 작품은 완벽한 해답을 주지 않지만, 모순된 감정과 선택을 꺼안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진진을 통해 되돌아보게 해주었다. 그래서 더욱 오래 기억에 남는 책이었다. 그리고 독서 토론을 통해 사람들의 다양한 해석을 들을 수 있었는데, 재미있는 경험이었던 것 같다.</p>
	2	<p>한채원 2393075</p>	<p>『모순』을 읽으면서 가장 깊이 남았던 문장은 “우리들은 남이 행복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신이 행복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납득할 수 없어한다”는 구절이었다. 이 말은 꽤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나 역시 다른 사람의 불행은 쉽게 넘기면서, 내 불행은 부당하다고만 여겨왔던 건 아닌지 돌아보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토론을 하면서 진진이라는 인물이 겪는 가족과의 갈등, 사랑 속에서의 혼란, 그리고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은 결국 ‘행복’이라는 감정과 얼마나 가까워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걸 느꼈다.</p> <p>진진이 “나의 인생에서 ‘나’는 당연히 행복해야 할 존재였다”고 말하는 장면에서, 그의 모든 선택과 고민이 사실은 스스로를 사랑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았다. 이번 독서 토론은 단순히 책 내용을 해석하고 나누는 자리를 넘어서, 나와 주변 사람들, 그리고 ‘행복’이라는 감정에 대해 스스로 질문해보는 계기가 되어 좋았다.</p>

	3	이채원 2393076	<p>독서 토론을 통해 『모순』은 단순한 개인의 연애나 가족사를 다룬 로맨스 소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아가며 마주하게 되는 선택의 아이러니를 섬세하게 그려낸 작품이라는 점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안진진의 선택을 두고 팀원 각자가 다르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며, 이 소설이 얼마나 다양한 시각과 감정을 끌어낼 수 있는지를 실감했다. 나는 안진진이 결국 이모와 비슷한 삶을 선택했음에도, 그것이 단순한 반복이나 모방이 아니라 직접 겪어 보겠다는 의식적인 선택이었다는 점에서, 어쩌면 어리석지만 주체적이고 용기 있는 태도로도 읽힌다고 생각했다. 그 점이 오히려 인물의 입체성과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지점이라 느껴져 인상 깊었다.</p>
--	---	----------------	---